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MSN: 6월 미 신축 주택 판매건 줄었다... 70만건 미만
- WSJ: 연준 오늘 금리 인상으로 22년래 최고치 예상
- CNBC: "고금리는 앞으로 계속 될 예정이다"
- CNN Business: 임시직 근로자 부상으로 미 경제 판도 바뀐다

[금융]

- WSJ: 중국 자금, 서구 세계 빠져 나간다

[부동산]

- CNBC: 모기지 수요 감소... 높은 모기지 금리 탓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인공 지능, 인간 대체한다: 드라이브 스루에서
- WSJ: "주 4일 근무, 5일 근무보다 더 효율적"
- WSJ: Google과 MS, AI 분야에 크게 투자하다
- Bloomberg: Coca-Cola, 높은 수요로 전망치 상향 조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Newly built U.S. home sales fall in June

6월 미 신축 주택 판매건 줄었다... 70만건 미만

-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5월에 급증한 주택 구매 수요가 줄면서 6월에 감소했다.
-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의 71만 5천 건에서 2.5% 감소한 연율 69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오늘 수요일 발표했다.
- 올해 6월에 신축 주택이 판매된 중간 가격은 41만5천4백달러이며 평균 가격은 49만4천7백달러였다.

MSN 기사

CB 기사

WSJ: Fed Set to Raise Rates to 22-Year High. Here's What to Focus On.

연준 오늘 금리 인상으로 22년래 최고치 예상

- 연준이 오늘 금리 0.25%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파월 의장이 오늘 수요일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이기에는 경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연준 관계자들이 추가 금리 인상 계획을 확실히 하기에 힘듦 상황이다.
- 연준은 오늘 오후 2시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주 회의 이후에 분기별 금리 및 경제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을 전망이다.

WSJ 기사

CNBC: 15 years of low interest rates reshaped the U.S. economy. Here's what's changing as rates stay higher for longer

"고금리는 앞으로 계속 될 예정이다"

- 연준은 지난 15년 동안 기준 대출 금리를 이코노미스트들이 '실효 하한선'(the effective lower bound)이라고 부르는 수준에서 유지해 왔다.
- 저금리가 발생할 경우 경우에 따라 개인 금융과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왜곡시키며 투자자가 위험을 계산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Low interest rates can in some cases distort the basic assumptions of personal finance and business, shifting how investors calculate risk).
- 연준은 현대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주기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미국 경제는 여러 세대에 걸쳐 볼 수 없었던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Bankrate.com의 워싱턴 지부장인 Mark Hamrick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만간 금리가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CNBC 기사

CNN Business: The rise of gig workers is changing the face of the US economy

임시직 근로자 부상으로 미 경제 판도 바뀐다

- 현재 미국에는 지난 10년간 Uber, 도어 대시, 인스타카트 같은 앱을 통해 프리랜서로 Gig Economy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임시직 계약 근로자들이다. 이들 각 노동자들은 수백만명이다.
- 이같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시키고 대학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기반 각 워크를 통해 IRS에 소득을 신고한 사람수는 최근 수년간 1백만명에서 거의 5백만명으로 증가했다. 기술 플랫폼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 뉴욕시 등 현재 전국 각 지방 정부는 이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 임금 보호법을 발표했으며 2020년 캘리포니아는 차량 호출 및 배달 기사들을 독립 계약인으로 간주하면 최종 수입 보장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CNN Business 기사

[금융]**WSJ: Chinese Money Flees the Western World****중국 자금, 서구 세계 빠져 나간다**

- 불과 수년전만해도 중국 자금은 세계 곳곳은 고급 주택, 호텔, 화학 회사, 대기업을 사들이면서 큰 손 노릇을 했다.
- 그러나 중국 자본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투자가 서방에서 벗어나고 있다.
- 대신에 중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공장과 아시아, 중동, 남미의 광산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더 돈을 투자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중국은 이들 지역에 협력을 강화하고 중요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SJ 기사

[부동산]**CNBC: Mortgage demand drops as interest rates remain stubbornly high****모기지 수요 감소... 높은 모기지 금리 탓**

-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변동 없이 최고치에 근접해 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
- 모기지 은행 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지난주 총 모기지 신청 건수는가 전 주에 비해 1.8% 감소 했다.
-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계약 이자율은 6.87%로 변동이 없다. 계약금 20% 대출의 경우 몇 주 전에 7%를 넘어 섰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Can AI Replace Humans? We Went to the Fast-Food Drive-Through to Find Out****인공 지능, 인간 대체한다: 드라이브 스루에서**

- 챗봇이 패스트푸드 매장의 드라이브 스루 주문을 대신하고 있다.

- 패스트푸드 업계가 사상 최악의 인력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AI가 그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
- “3년 후에는 미국 내의 드라이브 스루에서 사람이 주문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Presto의 최고 경영자 Krishna Gupta가 말했다. 이 회사는 350여 개 레스토랑에 챗봇 기술을 제공한다.
- 챗봇이 정말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 업계 분석가, 레스토랑 직원들은 모두 “이 기술은 직원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준다”고 말한다.
- 또한 봇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가끔 실수가 있더라도 봇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Checkers 레스토랑 매니저인 Evie Winterhalter는 “우리가 주문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WSJ 기사

WSJ: The Four-Day Workweek Gets Shorter With Practice, Companies Find

“주 4일 근무, 5일 근무보다 더 효율적”

- 사람들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할수록 주당 근무 시간은 더 짧아진다. 이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 이 실험은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캐나다 등 4개국에서 실시했다. 수십 개의 기업이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을 주되, 업무량은 동일하게 부여해 효율성을 측정한 것.
- 6개월 후, 근로자들은 번아웃 감소, 건강 개선, 직무 만족도 상승 등의 결과를 얻었다. 한편 이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되어 정신적이고 육체적 건강을 얻었다고 답했다.
- 근로자가 주 4일 근무제에 익숙해지면 장기적으로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기업과 연구자들이 말했다. 12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나온 연구 결과이다.
- 반면, 이 실험에 참여한 일부 근로자들은 그 시간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 이 실험에 참여한 미국 디지털 마케팅 전문지 Search Engine Journal CEO인 Jenise Uehara에 따르면 원격 근무 직원 30명 중 일부는 업무량 증가에 부담을 느껴 이직률이 높아졌다.

WSJ 기사

WSJ: Google and Microsoft Paying Big to Play in AI Google과 MS, AI 분야에 크게 투자하다

- 구글과 MS 두 회사 모두 막대한 컴퓨팅 리소스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기술을 구축하는 데 적합한 기업라 볼 수 있다.

- 현재 MS는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거의 600억 불에 달하며,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710억 불에 달한다. 두 회사 모두 지난 4분기 동안 280억 불이 조금 넘는 자본을 지출했다.
- MS의 자본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89억 불을 기록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MS는 새 회계연도 때 42%의 영업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두 회사는 이번주 화요일 비교적 개선된 실적을 발표했다. 구글의 핵심 광고 사업은 성장세로 돌아섰고, MS의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사업은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WSJ 기사

Bloomberg: Coca-Cola Raises Outlook as Demand Remains Robust Coca-Cola, 높은 수요로 전망치 상향 조정

- 코카콜라는 높은 수요로 2분기 실적에서 올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 이 회사의 연간 매출 성장률이 7%에서 8%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이익은 전년 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율 변동 및 인수 영향을 제외한 2분기 매출은 11% 증가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8.6%를 상회한 것.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소비자신뢰지수, 2021년7월 이후 최고..."경기 낙관"

미국에서 고금리 지속에도 7월 소비자신뢰지수는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CNN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가 집계해 이날 공개한 7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17을 기록해 전달의 110.1보다 상승했다.

이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6월 급격한 상승에 이어 상승흐름을 지속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